

# 韓國語 慣用表現의 話用論의 研究\*

沈 在 箕\*\*

## 1. 緒 言

1.1. 話用論이라는 範疇의 言語研究分野가 새로운 注目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의 言語研究方法이 빛은 必然의 結果이다. 한때는 “文法”이란 이름 아래 言語研究의 總括作業이 試圖되기도 하였으나, 早晚間 거기에서 音韻論이 分離 獨立하였고 뒤따라 形態論이 때로는 造語論, 때로는 語彙論이란 名稱과 並立하면서 分岐遊離되자 “文法”은 곧 統辭論이라는 等式을 許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統辭論은 自然히 語辭間의 統合的 構成關係를 解明하는 일에 熱心하게 되면서 言語의 內在的 生命이라고 할 수 있는 “意味”를 本意아니게 蒸發시키는 結果를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統辭論과 意味論의 對立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勿論 研究者의 研究態度에 따라 統辭論과 意味論의 領域이 同一視되어 重疊되기도 하였으나 “統辭”라고 하는 낱말이 指示하는 바가 文章 構成上의 諸規則이라는 內容을 벗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文章의 意味上의 問題들은 어쩔 수 없이 意味論(보다 엄밀하게는 統辭意味論)이 取扱해야 할 處으로 割當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狀況에서 特定한 個別言語의 文章研究는 그 特定한 自然言語 文章의 普遍的 構造와 普遍妥當한 意味만을 다루게 됨으로써 이른바 眞空의 文章意味라는 虛構的 存在를 研究對象으로 삼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障壁의 脫出口가 다름아닌 話用論이었다. 學問의 領域을 지나치게 極端의으로 細分하고 限界를 明示하려는 研究態度가 오히려 研究

\* 이 글은 1985 년도 文敎部 海外派遣연구 계획에 의한 研究報告임.

\*\* 국어국문학과 교수

對象을 制約하는 自繩自縛을 招來한 셈이다. 그렇다고 言語研究가 中斷될 수도 없고, 中斷되어서도 안되는 만큼, 統辭論과 統辭意味論에서 다를 수 없었던 言語現象들을 話用論이 收斂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統辭論이나 統辭意味論에서 다루던 “文章”이라는 研究單位는 實際로는 同一한 것이면서, 話用論에 와서는 “發話”라는 새로운 用語로 再整備된다. 왜냐하면 一定한 言語構造(대개는 文章)의 話脈依存的 樣相과 意思疏通의 原理를 다루기 위하여서는 從來의 文章이란 用語가 適合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話用論은 言語使用의 遂行原理를 體系化 내지 解釋하는 分野라고도 할 수 있고, 좀더 包括的으로 말하자면 言語理解에 基礎를 두고 話脈과 發話가 어떻게 適切하게 運用되는가를 話者의 觀點에서 推論함으로써 우리 人間이 어떻게 完璧한 言語使用者(및 言語理解者)가 될 수 있는가를 追究하는 言語研究分野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話用論은 本質的으로 特定한 研究方法論을 固執할 수 없다. 勿論 前提, 含蓄意味, 推定같은 概念은 言語哲學分野에서 借用한 것이고, 隱喻, 修辭的 疑問, 省略, 強調 등의 比喩話法은 오랫동안 文學研究家들의 專有物이었으며, 階層, 地域, 尊卑 등의 概念은 社會言語學의 研究對象이었다. 이제 이런 여러 用語가 話用論에서는 오로지 言語事實에 대한 有用한 機能的 說明과 보다 完璧한 運用 및 理解를 위해서 自由롭게 活用된다.

그러나 다시한번 돌이켜 볼 必要가 있다. 言語現象을 올바르게 綜合的으로 理解하고 說明하려는 努力과 그러한 研究成果대로 言語가 運用되는나하는 問題는 결코 같은 領域이 아니라는 事實이다. 왜냐하면 言語가 무엇이며 어떻게 人間社會에 寄與하고 있는가를 안다고 하여 言語現實이 이른바 理想鄉의 正義社會의 具現에 直結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言語現象의 本質을 解明하고자 하는 우리의 作業이 늦추어질 수도 없다. 要컨대 우리는 話用論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說明할 수 없었던 言語現象을 駭측없이 說破해 내고자 한다. 비록 우리의 理想이 쉽게 實現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現在의 時點에서 話用論이 追究하는 目標은 言語現象을 통한 人間の 보다 徹底한 解明이다. 우리는 이 目標을 향해 固定된 틀 속에 들어있는 研究範圍를 풀어헤치면서

話用論이란 이름 아래 自由롭게 言語現象들을 探索하고자 한다.

1.2. “慣用”이란 用語가 言語研究를 위하여 쓰일 때, 우리는 우선 그것이 나타내는 意味의 剩餘的 重複性을 생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言語가 이미 한 言語社會內에서 約束된 慣用表現의 體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用語를 한 言語의 普遍的이고 一般的인 使用에 適用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特殊한 範圍에서의 作用, 그러면서도 그 言語社會內의 누구든지 그러한 使用法을 즉시 理解하는 限界內에서의 使用을 指稱한다. 따라서 慣用表現들은 普遍的이고 日常的인 意味를 나타내는 語彙나 語句로부터 약간의 意味를 屈折시킨 것이라고 暫定的으로 規定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약간의 屈折이 어떤 狀況에서 왜 일어났으며 어느 程度로 일어났느냐, 즉 얼마만큼의 약간이냐가 問題된다.

話用論은 原則적으로 이 약간의 意味屈折에 대해 깊은 關心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약간의 意味屈折은 日常的인 表現의 限界를 벗어나려는 動機에서 生成된 것이면서도 동시에 特殊한 狀況에 適應하려는 勞力の 所産이다. 日常性을 벗어나려 한다는 점에서 正常的 意味로부터의 逸脫이요, 새로운 意味로의 開放이지만 그 開放은 特殊狀況을 위한 開放이기 때문에 制約을 前提로 한 開放이다. 대체로 語彙의 次元의 慣用表現에는 熟語, 隱語, 卑俗語, 比喻語, 禁忌語 등이 있고, 語句 및 文章次元의 慣用表現에는 俗談, 故事成語, 禁忌談, 吉凶談, 解夢談, 格言, 金言, 箴言, 수수께끼, 人事말 등이 있다.<sup>1)</sup>

本稿는 이들 慣用表現 가운데서 熟語와 人事말 그리고 特殊對話 몇 예를 論議의 對象으로 삼고자 한다. 거듭 強調하거니와 話用論의 理想은 言語를 通한 人間理解이다. 따라서 우리의 論議가 慣用表現이라 생각되는 言語資料에 대한 解釋과 分析에 머물지라도 그러한 論議의 窮極的 指標는 참다운 人間像의 設定과 無關할 수만은 없다는 숨겨진 意圖도 分明히 밝혀두고자 한다.

1) 拙稿(1982), 俗談의 綜合的 檢討를 爲하여, 冠岳語文研究 7. pp. 216~217 參照.

## 2. 熟 語

2.1. 熟語에 대한 關心은 대개 外國語를 새로 習得할 때 발생한다. 母國語 하나만을 알고 사용하는 경우에, 熟語는 特異한 意味單位로 理解하기 어렵다. 이미 無意識적으로 一定한 둘(혹은 그 以上)의 單語나 語幹形態素의 結合을 特定한 意味로 把握하면서 거기에 아무런 疑心도 품지 않기 때문이다. 一般言語大衆의 立場에서 본다면 熟語는 熟語로서 區別할 理由가 없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만 注意를 기울여 본다면 熟語는 日常의 言語가 詩가 되기 위하여 한 段階 건너된 跳躍의 結果이다. 말하자면 熟語는 言語의 鍊金術이 만들어 낸 一次產品이라고 할 수 있다. 凡常한 單語의 結合이 그들 單語가 本來 지니고 있는 意味의 限界를 뛰어넘어 意外의 새로운 意味를 創出한다. 觀點을 바꾸어 보면, 어느 特定한 意味를 表出해 내기 위해 選別될 수 있는 많은 單語(혹은 語幹形態素) 가운데서 唯獨 特定한 그 單語나 形態素가 取擇되었다고 하는 事實은 대단히 偶發的이고 神奇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論議가 熟語에 대한 一般的인 認識이었다. 이제 우리는 以上의 既存知識을 보다 體系的으로 理解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첫번째 接近은 熟語의 構造의 特性을 밝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그것들의 話用論的 機能을 解明함으로써 熟語의 實相에 到達해 보고자 한다.

### 2.2. 熟語의 種類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熟語는 두개 以上の 單語(혹은 語幹形態素)가 結合하여 하나의 單語와 同一한 統辭的 및 話用論的 機能을 遂行하는 一群의 結合語彙를 指稱한다. 그러므로 熟語에는 體言的 機能을 하는 名詞熟語와 用言的 機能을 하는 動詞熟語의 두 가지가 存在한다.<sup>2)</sup>

### 2.3. 名詞熟語

2) 여기에 사용된 名詞熟語·動詞熟語와 같은 用語는 體言熟語·用言熟語로 바꾸어 불러도 좋다. 筆者는 體言이니 用言이니 하는 用語의 概念을 名詞나 動詞란 用語에 包括시켜 사용하는 態度를 취하고 있다.

名詞熟語는 대체로 冠形語가 修飾을 받는 名詞 앞에 놓임으로써 形成되고 動詞熟語는 動詞앞에 그 動詞의 意味를 特定事例에 맞도록 制約하기 위하여 어떤 名詞나 動詞가 統辭的 結合原則에 따라 結合됨으로써 形成된다.

먼저 名詞熟語의 例를 살펴 보자.

1. 들은-풍월, 입찬-소리, 큰-집, 잔잔-오월
2. 바지-저고리, 위-아래, 앞-뒤
3. 밥-줄, 밤-손님, 코-방귀
4. 입에-플칠, 옆드리면-코닿을-데.

1에서는 名詞 앞에 動詞의 冠形形이 修飾語로 붙어 있고, 2에서는 앞뒤 名詞가 對等한 資格으로 羅列되어 있으나 그 順序에는 넘나들 수 없는 固定性이 엿보이며 3에서는 名詞가 冠形形처럼 붙어 있으며, 4에서는 冠形形, 副詞形이 마구 섞여서 그 結合의 過程이 單純치 않은 語句가 앞에 붙어 있다. 이들 名詞熟語에 대해서는 보다 細密한 下位分類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단지 2와 3을 몽둥그러 혼히 複合語라는 用語로 語彙論에서 言及될 뿐이었다. 그러나 위의 네 가지가 統辭的 結合方式에 있어서 各己 固有한 領域을 지키고 있는 만큼 그에 合當한 名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선 1을 冠形名詞熟語, 2를 並立名詞熟語 3을 複合名詞熟語, 4를 統合名詞熟語라 부르고 이들에 관해 檢討해 보기로 하자.

### 1) 冠形名詞熟語

- 5a. ‘들은-풍월이라고 한 마디 하는구나.’
- 5b. ‘그 사람 재산이야 큰-집에 몇번 들락거린 경력이지.’
- 5c. ‘나이 들어 해외유학하는 거, 일본 일초가 잔잔-오월이더군.’

풍월(風月)은 글자대로는 ‘바람과 달’을 뜻하지만 원래는 음풍농월(吟風弄月)이라는 한자속어의 준말이다. ‘바람을 읊으며, 달과 더불어 논다’는 詩人墨客의 自然玩賞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리하여 풍월은 詩를 가리키는 代用語가 되었다. 그러므로 ‘들은-풍월’은 ‘다른 사람

이 읊은 詩句節'을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옛날 우리 나라 學童들은 書堂에서 初步的인 漢字學習이 끝나면 先人들이 格式을 갖추어 지은 有名한 詩句들을 暗頌하는 것으로부터 詩作의 能力을 길렀다. 接長이나 先輩들이 읊는 詩句를 귀에 익히고 또 흉내내어 읊조리는 것은 글공부하는 사람의 餘興이요 낭만이였다. 그래서 '들은-풍월'은 자기도 모르게 따라 暗頌하는 愛頌名詩句가 되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愛頌名詩句는 글공부를 조금밖에 못한 사람이거나 아직 그 詩句의 참맛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不完全하게 理解하는 狀態에서 口誦 또는 朗吟하는 걸멋부림의 材料가 되는 수도 있었다. 여기에서 '들은 風月'은 '내용도 잘 모르면서 입으로만 읊는 詩句'라는 含蓄意味를 지니게 되었다. 물론 '詩句'는 '知識一般'이라는 뜻으로 擴大適用이 되고 이 熟語는 어떤 사람의 發言을 비꼬거나 批評할 때 援用되었다. 그러면 '들은 풍월'의 意味가 어떻게 조금씩 바뀌어 쓰이는가를 要約해 보기로 하자.

- a<sub>1</sub>. 자주 들어 알게 된 詩句
- a<sub>2</sub>. 자주 들어 알게 된 名句 또는 知識
- a<sub>3</sub>. 자주 들어 귀에 익지만 그 뜻은 잘 모르는 事項(知識)
- a<sub>4</sub>.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知識
- a<sub>5</sub>.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데 쓰이는 事項(知識)

a<sub>1</sub>에서 a<sub>5</sub>까지의 意味는 5a가 어떤 話脈에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決定된다. 예컨대 '人生到處有青山'이란 詩句를 어떤 사람이 引用했을 때 萬一 그 사람이 이 詩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詩句를 쓸만한 話脈에서 사용했다면 a<sub>1</sub>에 해당하지만, 꼭 알맞은 話脈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이 말을 사용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특별한 好感을 갖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비꼬는 뜻으로 5a를 말했다면 그것은 a<sub>5</sub>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마디 對話上의 發話에서도 그 意味가 이처럼 多樣的 振幅으로 變動한다.

'큰-집'은 최소한 세 가지 意味範疇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物量的으로 規模가 큰 家屋을 가리킨다. 垆地가 넓거나 高樓巨閣이 일단 '큰-집'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熟語라고는 할 수 없다. 두번째는 '큰'

의 概念에 ‘나이가 많은’이라든가 ‘次序가 높은’이라는 家族序列을 포함시켜서 伯父宅(伯父宅食口全部) 또는 本夫人宅(妾과의 對比에서)을 指稱하는 경우이다. 이 두번째의 意味가 熟語가 지니는 一般的인 特性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번째는 監獄을 가리킨다. 5b의 發話가 그 예이다. 이 경우에는 다분히 隱語的 要素가 加味되어 있다. 한편 5b의 發話를 基本意味의 變改없이 다음과 같이 表現할 수도 있다.

5b' 그 사람 큰-집에 몇번 들락거렸지.

5b'' 그 사람 큰-집에 몇번 다녀온 경력이 있어.

5b''' 그 사람 큰-집에 몇번 다녀온 경력이(그 사람의) 재산이야.

5b'은 단순히 獄살의 事實만을 나타낸다. 그러나 5b''에서는 그 事實이 一種의 業績이 되고 5b'''에 와서는 그 業績이 肯定的으로 評價된다. 이렇게 肯定的으로 評價된 發話가 原發話 5b에서는 모두 包容되면서 그 肯定的 評價에 諷刺를 挿入하고 있다.

“간간-오월”은 月令에 따라 主觀적으로 느끼는 時間흐름의 差異를 나타내는 一聯의 熟語와 더불어 理解되어야 한다. 五月이라고 해서 時間의 흐름이 더디고 六月이라고 해서 빠른 것은 아니지만 낮이 길고 밤이 짧은 陰曆 五·六月과 일손은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다소 낮이 짧아진 陰曆 七·八月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온 우리나라 古來의 老人들, 農民들 그리고 婦女子들이 다음과 같은 慣用表現을 즐겨 사용하였었다.

삼사월-장장버텨

간간-오월

미진-유월

어정-칠월

건뚫-팔월

구시월-막서리.

正二月과 동지·선달을 매놓고 農事일을 本格的으로 하는 8個月을 描寫하되, 다시 3·4월과 9·10월은 月令을 앞에 놓았고, 5월부터 8월까지는 매달의 特性을 擬態語 語根을 冠形語로 삼아 描寫하고 있다. 相

對으로 보아 五月까지는 그래도 時間이 더디 가는 것같더니 六月부터는 점차로 加速이 붙어 정신없이 時間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諧謔의 맛을 살려 재미있게 표현한다. 그런데 만일 이들 一聯의 熟語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5c가 誤解될 수 있는 餘地를 남기고 있다. “잔잔”의 意味에는 “까다롭다. 힘들다”도 있기 때문이다. 즉 c는 다음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가능하게 된다.

c<sub>1</sub> 시간이 늦게 지나가서 지루함

c<sub>2</sub> 공부하기 까다롭고 힘들.

그러나 c<sub>2</sub>는 그 표현을 熟語로 理解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文脈에서 推定한 것이므로 話用論的 論議가 되지 않는다.

以上 冠形名詞熟語 세 가지 用例로부터 우리는 이들 熟語를 理解하기 위한 각기 다른 話脈的 要素가 있음을 發見한다. 첫째 ‘들은-풍월’에서는 傳統文化에 대한 理解가 前提되어 있다. ‘風月’이란 낱말이 지닌 歷史的·文化的 要素때문이다. 둘째 ‘큰-집’이 흔히 ‘伯父宅’으로 이해되는 通念化된 熟語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이 다시 ‘監獄’을 가리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社會가 여러 개의 特殊한 社會의 複合體임을 強調한다. 그러므로 熟語가 形成되는 背景에는 階層의 身分別 集團別 社會가 問題된다는 것을 注目해야 한다. 이 平凡한 熟語 ‘큰-집’은 우리에게 熟語의 社會的 要素를 환기시켰다. 셋째 “잔잔-오월”은 “잔잔”이란 形態素의 擬態的 象徵性和 더불어 韓國農村社會의 오래된 民俗 情緒가 裕解되어 있는 熟語이다. 韓國의 農村民俗에 대한 理解가 없다면 이 熟語는 聽者의 姿意的 解釋에 맡기는 詩的 表現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熟語에는 民俗的 要素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 2) 並立名詞熟語

6a. 그 모임엔 바지-저고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두라구.

5b. 기회는 이번뿐이야, 앞-뒤 볼 것 없어.

‘바지-저고리’는 단순히 ‘바지와 저고리’라는 固有韓服을 지칭하는 基本意味로부터 意味의 擴大를 通하여 熟語가 된다. 이때에 ‘바지’나



‘저고리’의 어느 하나만으로는 意味의 擴大가 不可能하다는 점에서 이들 두 낱말사이의 相互影響이 注目된다. 우선 ‘바지-저고리’는 固有韓服이란 뜻으로부터 上下衣服一般을 가리키는 것으로 平面的인 適用의 移動이 일어난다. 다음에는 “바지-저고리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게 되어 아직 洋服이 널리 普及되지 않은 時節의 ‘시골 農夫’를 뜻하게 되었다. 이들 “시골 農夫”는 대체로 敎育水準이 높지 않고 淳朴하기 때문에 官의 指示에 잘 順從한다는 副次的인 特性이 強調되어서 “會議에 動員되어 同意 잘하는 사람” 즉 “背後操縱이 잘 되는 사람” “會議에서 舉手 機 노릇 잘하는 傀儡”를 뜻할 수 있다. 또는 ‘시골 사람’이란 意味로부터 아무리 說得해 봐야 理解가 안되는 蒙昧한 群衆이란 含蓄意味를 強調하여 強壓하거나 無視해야 할 對象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바지-저고리’는 다음과 같은 意味의 轉變이 可能하다.

- a<sub>1</sub> 韓服의 上下衣
- a<sub>2</sub> 韓服을 입은 사람
- a<sub>3</sub> 시골 農夫
- a<sub>4</sub> 背後操縱이 잘 되는 사람
- a<sub>5</sub> 蒙昧하고 고집불통의 사람

위의 다섯 가지 意味에서 a<sub>3</sub>, a<sub>4</sub>, a<sub>5</sub>의 세 가지는 熟語의 意味를 갖는 것이고 그 가운데 어느 意味로 解釋하느냐 하는 問題는 話脈과 狀況이 話者의 意圖에 投影됨으로써 決定되는 것이다.

‘앞-뒤’는 글자대로 ‘앞과 뒤’라는 空間概念의 集合이다. 前面과 後面은 左右를 포함하여 周圍四方을 나타내고 거기에서 周圍環境, 狀況, 周圍人物을 가리킬 수 있다. 또 時間概念을 집어넣어 先後關係, 일處理의 順次등을 가리킬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일處理의 結果를 가늠하는 思慮깊은 姿勢·態度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6b의 發話는 話者가 聽者에게 決斷을 要求하는 것인데 이때에 話脈에 따라 “앞-뒤”는 聽者 自身이 지켜야 할 對自的 體面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聽者의 周圍를 가리키는 對他的 障礙要素 즉 人物·條件등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처럼 아무리 간단한 熟語라도 그 用例를 正當하게 이해하려면 話脈內에서의 話者의 觀點(이것을 話者의 意圖라고 말해도 좋다)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 3) 複合名詞熟語

7a. '그러다가 밥-줄 떨어지면 어떻게 할라구'

7b. '밥-손님이 다녀가신 뒤였거든'

흔히 複合語에 포함되는 複合名詞熟語에 대하여서는 相當한 研究가 있었다. 이들 複合語에는 이른바 사이시옷 現象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는데(콩밥과 공s밥) 그 理由를 解明하려는 노력과 함께 複合語의 意味도 重要한 論議의 對象이었다. 그런데 이들 複合語가 統辭的으로는 一種의 略語라는 特性을 指摘하는 데에는 대개 意見이 一致되어 있다. 가령 '콩-밥'은 "콩(으로 지은)밥"이며 '공s밥'은 "공(으로 먹는)밥"이라는 사실은 疑心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밥-줄'은 "밥(을 먹기 위해 필요로 하는)줄"이라고 풀이 놓을 수 있고 '밥-손님'은 '밥(에만 찾아오는)손님'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처럼 複合語는 統辭的으로 보다 긴 語句의 省略을 通하여 形成되었다는 構造的 特性이 있다. 그러나 이들 複合語가 모두 熟語가 되는 것은 아니다. 複合語가 複合名詞熟語가 되기 위하여서는 다음 두가지 중의 어느 한가지 條件을 滿足시켜야 한다. 즉 첫째는 '밥-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語辭選擇의 特異性이요, 둘째는 '밥-손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意味制約의 特異性이다. '밥-줄'의 경우에, 生計의 手段을 表現하기 위하여 "밥"과 "줄"을 選擇하여야 할 必然的인 理由가 있는 것은 아니다. '生計'를 '밥'으로 代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手段'이 꼭 '줄'이 되어야 할 理由는 없다. '줄' 대신에 '끈'이나 '통'이 될 수도 있다. 이때에 '줄'이 다른 어떤 낱말보다도 淵源과 連繫를 代表하기에 適切하다는 蓋然性이 있는데다가 緣-줄, 힘-줄, 똥-줄 등 다른 낱말에도 자주 나타나는 接屬的 結合機能이 '밥-줄'을 生計手段을 뜻하는 熟語로 만드는 데 貢獻했을 可能性이 있다. 言語大衆이 特定的 概念을 가리키기 위해 어떤 낱말을 選擇하느냐 하는 것은 그럴만한 蓋然性이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言衆의 姿意的 選擇의 所産이다. 이것을 우리는 語辭選擇의 特異性이라 부르코자

한다. ‘밥-손님’은 정말로 손님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킬 경우, 예컨대 夜間營業을 하는 業所에 一定한 시간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을 말하는 경우라면 그 複合語가 熟語가 될 수 없고 단지 平凡한 複合語일 뿐이다. 그런데 ‘밥-손님’이 “도둑”을 指稱하는 比喻의 機能을 가질 때, ‘밥-손님’은 비로소 흥미있는 熟語의 班列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므로 ‘콩밥’이 熟語가 되려면 단순히 “콩(을 섞어 지은)밥”이나 “콩(으로 지은)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밥으로 감옥의 罪囚들이 먹는 것”이란 意味를 가질 때 비로소 熟語가 된다. 그러므로 複合名詞 熟語는 一般의 複合語가 그 言語社會 內에서 特定한 意味上의 制約을 받아 通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統合名詞熟語

- 8a. ‘그 친구에게도 입에 풀칠이 힘들던 시절이 있었다네.’  
 8b. ‘엎드리면 코담을 데라더니 자동차로 두 시간이나 걸려?’

‘입에 풀칠’이라든가 ‘엎드리면 코담을 데’와 같은 熟語는 複合名詞 熟語에서처럼 統辭構成上의 壓縮이나 省略이 없다. 그만큼 緊張感이 缺如된 平板의인 構造이다. 그러나 그 表現이 지니는 語辭選擇의 特異性과 意味制約의 特異성은 반드시 갖추고 있다. 우리는 위의 發話를 다음과 같이 고쳐 놓을 수 있다.

- 8a' ‘그 친구에게도 밥 먹기 힘들던 시절이 있었다네.’  
 8b' ‘아주 가까운 곳이라더니 자동차로 두 시간이나 걸려?’

이들 發話에서는 8a, 8b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比喻에 의한 諧謔 意味나 象徵性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事實에 대한 陳述일 뿐이다. 그런데 ‘밥먹기’를 ‘입에 풀칠’로 바꿈으로써 단순한 ‘밥먹기’가 아니라 ‘延命을 위한 힘든 生活’이라는 含蓄意味를 지니게 되는 것이며, ‘아주 가까운 곳’을 ‘엎드리면 코담을 데’라고 표현하여 空間的 近接性 곧 가까움을 感覺의으로 느끼게 한다. 이때에 ‘입에 풀칠’은 漢字熟語 ‘糊口之策’과 관련되어 있으나 ‘엎드리면 코담을 데’는 그에 대응하는 漢字熟

語가 발견되지 않는다. ‘指呼之間’이나 ‘咫尺之地’를 풀이한 熟語가 있을 법하지만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의 言語慣習이 漢字語에 의해 상당한 影響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熟語를 비롯한 慣用表現의 生成에 있어서는 韓國語 固有의 領域을 간직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慣用表現의 生成이 外來文化의 受容과 無關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本質的으로는 土着文化의 表出에 더 큰 比重이 있음을 이들 統合名詞熟語를 통하여 確認할 수 있다. ‘엎드리면 코 닿을 데’는 ‘엎드려지면 코 닿을 데’ ‘넘어지면 코 닿을 데’와 같은 異形態도 가지고 있다.

#### 2.4. 動詞熟語

다음으로 動詞熟語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動詞熟語는 熟語의 統辭의 機能을 擔當하는 動詞 앞에 形態上 어떤 文章成分이 오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自動詞나 狀態動詞 앞에 主格表識{이/가}가 들어 갈 수 있는 名詞와 結合된 것이고, 둘째는 他動詞 앞에 目的格表識{을/를}이 들어갈 수 있는 名詞와 結合된 것이며 세째는 이른바 副詞形表識를 앞에 거느리고 있는 動詞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便宜上 각각 冠主動詞熟語, 冠目動詞熟語 및 冠副動詞熟語라고 이름붙여 보기로 한다. 이 세 가지 分類에 따라 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冠主動詞熟語

9. 가난(이)들다. 귀(가)먹다. 가슴(이)뛰다.  
 궁둥이(가)무겁다. 금(이)가다. 기(가)막히다.  
 까닥없다. 난메(가)없다. 녀살(이)좋다.  
 눈썹(이)사남다. 눈(이)멀다. 담(이)차다.  
 뻘(가)끼다. 독(이)오르다. 동(이)나다.  
 마(가)들다. 마음(이)가다. 말발(이)서다.  
 바닥(이)나다. 발(이)길다. 배(가)맞다.  
 본메(가)없다. 부아통(이)터지도. 빈틈(이)없다.  
 속(이)상하다. 손끝(이)멧다. 손발(이)맞다.  
 손(이)가다. 숨(이)넘어가다. 신(이)나다.  
 얼굴(이)팠리다. 오갈(이)들다. 오금(이)뜨다.

오지랴(이)넓다. 요정(이)나다. 입(이)걸다.  
 자리(가)잡히다. 줌(이)쑤시다. 치(가)떨리다.  
 트집(이)나다. 툼(이)나다. 판(이)나다.  
 풀(이)서다. 물(이)가다.

2) 冠目動詞熟語

10. 가물(을)타다. 집(을)먹다. 경(을)치다.  
 결눈(을)주다. 꿀탕(을)먹다. 콩무니(를)베다.  
 기(를)쓰다. 길(을)들이다. 나이(를)먹다.  
 노여움(을)사다. 눈(을)감다. 눈독(을)들이다.  
 눈총(을)맞다. 눈치(를)보다. 담(을)쌍다.  
 뻤(를)벗다. 땡(을)잡다. 뻤(를)쓰다.  
 뉘서리(를)맞다. 등골(을)뽑다. 등(을)대다.  
 마음(을)놓다. 목(을)놓다. 바가지(를)굽다.  
 발(을)베다. 배꼽(을)베다. 배(를)얇다.  
 부정(을)타다. 서리(를)맞다. 속(을)주다.  
 손끝(을)맺다. 손(을)놓다. 숨(을)둘리다.  
 시치미(를)베다. 아우(를)보다. 애(를)끊다.  
 여름(을)타다. 역성(을)들다. 오금(을)박다.  
 요정(을)내다. 인상(을)쓰다. 인심(을)쓰다.  
 일(을)보다. 입방아(를)짚다. 입(을)씻기다.  
 추위(를)타다. 치(를)떨다. 큰코(를)다치다.  
 트집(을)잡다. 툼(을)내다. 파리(를)날리다.  
 판(을)치다. 편(을)들다. 한눈(을)팔다.  
 햇빛(을)보다. 헛다리(를)짚다.

3) 冠副動詞熟語

11. 날고-기다. 깔고-몽개다. 넘고-쳐지다.  
 눈감고-아웅하다. 들고-파다. 파고-들다.  
 넘겨-짚다. 잘라-먹다. 집어-삼키다.  
 퍼-붓다. 귀에-익다. 눈에-들다.  
 몸에-배다. 손에-넣다. 입에-담다.

以上으로 動詞熟語가 어떤 規模로 存在하는가를 살펴 보았다.<sup>3)</sup> 여기에서 動詞熟語의 大部分이 名詞와의 統辭的 結合에 의한 것도 確認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들 動詞熟語는 하나의 事件을 表象하는 命題的 複合意味를 나타낸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動詞熟語의 生成要因에는 特定한 事件을 描寫·叙述하는 統辭的 結合이 死隱喻의 樣相으로 存在한다는 것이 確認되었다. 論者에 따라 動詞熟語를 語句의 段階로 固定시키기도 하고 語彙의 次元으로 취급하기도 하는데, 이와같은 두 가지 見解는 이들 熟語를 어느 觀點에서 解釋하느냐하는 視角의 問題이다. 生成過程으로 보면 分明히 統辭的 結合이므로 語句로 보아 무방한 것이요, 意味機能으로 보면 單一한 特定概念을 隱喻의 形式으로 表出하고 있으므로 語彙로 취급하여 또한 무방한 것이다. 動詞熟語의 이러한 二重性은 그 쓰임에서 더욱 分明하게 드러난다. 語彙의 特性을 강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名詞와 動詞사이의 統辭的 結合을 보여주는 -이, -가, -을, -를 등의 助詞를 可能的 限, 排除·脫落시킴으로써 語彙의 모습으로 쓰이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熟語중의 一部는 다음 例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가}와 {-을/-를}이 交替되고, 後行하는 動詞의 形態를 바꾸면서 狀況에 따라 두 가지 異形態가 自由롭게 사용된다.

12. 애(가)타다↔애(를)태우다.  
 요정(이)나다↔요정(을)내다.  
 자리(가)잡히다↔자리(를)잡다.  
 치(가)멀리다↔치(를)멀다.  
 틈(이)나다↔틈(을)내다.  
 트집(이)나다↔트집(을)내다.

한편 이들 熟語는 名詞熟語에서의 마찬가지로 話脈에 따라 話用論的 比喩機能을 달리한다. 다음 例文을 보자.

3) 우리는 熟語의 完備한 目錄을 具備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熟語를 目錄으로 만들 경우에 動詞熟語의 三分體系는 그 全貌를 理解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13a. 소나무 그늘에 자리-잡을까?  
 13b. 자리-잡히면 편지할께.  
 13c. 그 녀석이 벌써 나이 마흔이야,  
 어느 세월에 자리-잡을꼬.

13a는 野遊會에 가서 놀기 좋은 場所를 물색하는 경우에 쓰일 법한 것으로 이때의 “자리-잡”은 平凡한 叙述이요 아직 熟語의 班列에 들어 서지 않았다. 그러나, 13b에 오면 비록 空間概念을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삶의 터전’ 또는 ‘生活基盤’이라는 뜻으로 ‘자리’가 抽象化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13b에서 ‘자리-잡히’는 熟語의 機能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다시 13c에 오면 ‘자리-잡’는 行위가 空間的인 概念으로부터 情緒的 心理的 次元으로까지 變容되었음을 보인다. 이것을 나이 四十을 넘기도록 安定된 生活을 하지 못하는 子息의 生活態度를 염려하는 老父母의 發話라고 한다면 그 ‘자리-잡’는 行위는 精神的 安定과 經濟的 安定을 包括하는 綜合的인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이 動詞熟語는 先行素와 後行素의 統辭의 結合과 隱喻的 意味變換이 形成한 語彙項目이다. 이때에 隱喻的 意味變換을 일으키는 것은 先行素일 때도 있고, 後行素일 때도 있으며 이들 두 要素가 結合함으로써 發生할 때도 있다. 다음 例들을 살펴보자.

- 14a. 눈(이)-눈다. 눈(이)-떨다. 눈(이)-쏟리다. 눈(이)-어둡다.  
 눈(을)-감다. 눈(을)-뜨다. 눈(을)-피하다. 눈(을)-속이다.  
 14b. 손(이)-가다. 손(이)-저칠다. 손(이)-나다. 손(이)-싸다.  
 손(을)-대다. 손(을)-들다. 손(을)-보다. 손(을)-잡다.  
 14c. 입(이)-걸다. 입(이)-눈다. 입(이)-닿다. 입(이)-무겁다.  
 입(을)-씻기다. 입(을)-열다. 입(을)-놀리다. 입(을)-다물다  
 입(에)-담다. 입(에)-맞다. 입(에)-올리다. 입(에)-펼칠하다.  
 14d. 판(에)-나다. 판(이)-설다. 판(을)-치다. 판(에)-박히다.  
 14e. 마음-먹다. 더위-먹다. 양심-먹다. 잘라-먹다.  
 잡아-먹다. 집어-먹다. 귀-먹다. 겁-먹다.  
 14f. 가난-들다. 길-들다. 흥년-들다. 명-들다.  
 눈에-들다. 눈독-들다. 마(가)-들다. 바람-들다.

- 14g. 기-죽다. 풀-죽다. 술-죽다. 코-죽다.  
14h. 봄-타다. 가을-타다. 추위-타다. 부정-타다.

위의 例들을 보면 動詞熟語에 特別히 많이 쓰이는 先行素(名詞)와 後行素(動詞)가 있다. 先行素에는 눈, 손, 입, 판 등이고 後行素에는 먹다, 들다, 죽다, 타다 등이다. 名詞에는 위에 引用된 것 이외에도 귀, 마음, 가슴, 발 등 身體部位를 가리키는 것들이고 動詞에는 보다, 나다, 없다, 쓰다. 등 適用의 幅이 넓은 一般動詞들이다 이들 語辭가 지니는 共通性은 쓰임에 따라 多様な 含蓄意味를 나타낼 수 있는 이른바 多義語들이다. 이들 多義語는 적절한 先行素 또는 後行素와 結合하여 새로운 意味를 나타내는 熟語를 만든다. 多義語는 이와같이 熟語의 一部를 構成하는 熟語의 資源이 된다.<sup>4)</sup>

한편 이들 熟語가 發話안에서 作用하는 意味機能은 여러 가지 等差를 보인다. 獨特한 死隱喻로 定着하여 거의 새로운 語彙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있는 反面 어떤 것은 단지 단순한 複合語의 領域을 벗어나지 않는다. ‘퍼-붓다·넘겨-짚다·잡아-먹다’ 같은 冠副動詞熟語는 複合語로 취급해도 無妨한 것들이며 ‘틈-내다, 입-다물다, 속-대우다’ 같은 것도 意味의 變換이 두드러지지 않아 역시 複合語의 領域에 놓아 두어도 좋은 것들이다. 이러한 事實을 통하여 우리는 複合語와 熟語의 境界가 斷切된 것이 아니라 連續된 것임을 알게 되다. 그러나 熟語의 一部가 言衆들에게 쉽게 理解되지 않는 것일 때 그 熟語의 隱喻의 意味는 더욱 돋보이고 熟語로서의 資格은 確固한 것이 된다. 다음 몇 例를 보자.

- 15a. 요정(을)-내다.  
15b. 치(를)-떨다.  
15c. 멍(을)-잡다.

15a에서 ‘요정’은 漢字語 ‘了定’으로 요즈음에 자주 쓰이는 ‘確定’이

4) 우리는 熟語의 資源이 되는 多義語를 一般的인 多義語와 區別하여 特別한 名稱을 부여할 수도 있다. 가령 ‘熟語中心’ 또는 ‘熟語核’과 같은 用語를 생각할 수 있겠다.



나 ‘決定’과 비슷한 뜻의 낱말이다. 15b의 ‘치’도 漢字語 ‘齒’에 起源하는 것이고, 15c의 ‘땡’은 花鬪놀이에서 같은 種類의 花투 작을 겹쳐 갖게 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萬一 ‘요정, 치, 땡’의 原意味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들 熟語 15a, 15b, 15c는 豫想外의 新 奇한 뜻으로 받아들여서 熟語로서의 機能을 충분히 活用하게 된다. 이들 熟語에 대하여는 한때 辭典編纂者까지도 誤分析에 의한 낱말 풀이를 하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치(를)떨다’의 ‘치’는 ‘齒’로부터 ‘마음’이란 뜻으로 誤解되었고, ‘땡(을)잡다’의 ‘땡’은 ‘같은 자리 花투작’으로부터 ‘橫財數’라는 뜻으로 誤解되었다. 물론 誤解된 새낱말이 安着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치’와 ‘땡’은 ‘치떨다’, ‘땡잡다’ 이외의 형태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誤分析에 의한 새낱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요정(을)내다’의 경우는 젊은 世代의 言衆에게 ‘了定’이란 漢字語를 생각해 낼 수 없으므로 ‘요정내다’가 하나의 熟語로 ‘決定을 보다’ ‘決判이 나다’ ‘끝장내다’의 뜻으로 이해되고 심지어는 否定的의 意味를 極大化시켜 ‘깨뜨려버리다’ ‘파괴하다’의 뜻으로까지 使用하고 있다.

16a. 내일까지는 요정을 내시지요.

16b. 자백하지 않으면 요정을 내!

例文 16a는 特別한 話脈을 假想하지 않는 限 ‘요정(을)내다’의 一般的인 熟語意味 곧 ‘決定을 짓다’의 뜻으로 해석되지만 16b는 自白을 誘導하는 搜查官들이 刑事被疑者를 두고 體罰을 暗示하는 듯한 對話의 一部로 해석됨직한 말이다. 16b는 ‘요정을 내다’의 극단적인 의미를 含蓄한다.

위의 論議를 통하여 우리는 動詞熟語가 形成過程에 있어서나 意味作用에 있어서 熟語가 아닌 統辭的 一般語句 또는 複合語와 連繫性을 가지고 把握되는 特殊한 語彙項目임을 確認하였다.

- 5) 文世榮 조선어사전에는 ‘치(를)떨다’ ‘땡(을)잡다’를 잘못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낱말풀이를 하였다.

치 [명] ① 사물을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 ② 분하게 생각하는 마음.

땡 [명] 뜻밖에 수가 나는 것.

### 3. 人 事 말

#### 3.1. 通常의 人事말

人事의 기본의미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 기본의미에 들어있는 ‘당연히’라는 副詞가 倫理的 價値를 強調할 경우, 한 社會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禮儀라는 形式的 規範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그 禮儀를 言語로 表現할 때 그것이 곧 “人事말”이다.

그러므로 ‘人事말’이란 그것이 生成된 狀況과 人事말 自體의 내용으로 보면 自然스럽고 당연한 言表行爲이다. 그러나 비슷한 狀況에 處하여 人事말 自體가 지닌 意味內容을 깊이 吟味함이 없이 慣習적으로 言表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人事말은 새로운 觀點에서 注目을 받게 된다. 다시말하면 人事말이 慣用表現으로 굳어지면서 本來의 意味가 蒸發해 버리거나 脫色되면 그것은 단지 節次上的 行爲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여러가지 人事말의 本來意味와 脫色된 意味사이의 關係를 話用論의 觀點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慣行된 人事말은 크게 두 가지로 가를 수 있다. 하나는 平常時에 日常生活에서 쓰이는 人事말이고, 다른 하나는 特別한 行에서 쓰이는 人事말이다. 여기에는 다시 吉事와 凶事로 大別할 수가 있겠다. 得男·得女등 出生과 婚姻 冠禮 回甲등 年齡에 따라 祝福해야 할 行事와 昇進 級第 榮轉 같은 것은 吉事に 속하는 것이고 得病이나 負傷등 不意의 事故로 慰勞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가족이나 親知가 死亡했을 경우 같은 것은 凶事に 속하는 일이다. 傳統的으로 吉凶大小事는 ‘冠婚喪祭’라는 네 가지 主要行事で 代表되었으나 現代에 와서는 冠禮는 사라져 버렸고 祭禮는 家族單位로 縮少되어 이웃의 關心事에서 벗어났으므로 요즘은 婚禮와 喪禮에만 對外的인 行事로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음 경우의 人事말이 우리의 檢討 대상이다.

#### 日常의 人事말

每日 만나고 헤어질 때  
가끔 만나고 헤어질 때

오랜만에 만나고 헤어질 때  
 설날등 名節에 만나고 헤어질 때

吉事의 人事말

出生을 祝福할 때  
 結婚을 祝福할 때  
 榮達을 祝福할 때(合格, 昇進, 榮轉등)  
 壽를 祝福할 때(回甲, 古稀, 金婚등)

凶事의 人事말

臥病이나 負傷을 慰勞할 때  
 初喪을 慰勞할 때

이렇게 整理하여 보면 人事말의 趣旨는 問安, 祝賀 및 慰勞의 세가지로 要約된다. 그리므로 人事말을 하는 사람이 問安이나 祝賀나 慰勞의 意思가 없이 단지 習慣의으로 人事말을 하였다면 그것은 실로 意味없는 發言인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聽者에게 있어 그 人事말은 慣例에 따라 人事말의 額面意味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와같이 人事말은 話者 內面의 實質意思와 關係없이 社會에 慣行되는 約束에 의해 意味 效果가 發生하는 言表行爲의 하나이다.

그런데 過去 우리나라에서는 人事말도 事例에 따라 使用되는 語彙가 달랐다. 假令 問安人事말에서 “安寧”이 보다 一般的인 것이라면 “平安”은 좀더 恭敬의 情誼를 表하는 것이었고 “感祝”이나 “賀禮”가 極上의 祝賀人事말인데 反하여 “祝賀”는 보통으로 널리 쓰이는 俗語였다. 吊喪할 때에도 “罔極”은 父母喪을 당한 喪主에게 쓰는 것이고 ‘悲感’이나 ‘哀痛’은 慘戚을 보거나 兄弟喪을 당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俗語였다. 물론 現在도 傳統的表現方式에 따라 人事말에 있어 語辭選別이 重要な 몫을 차지하고 있으나 때때로 이러한 慣例와 法度を 몰라 分明하게 말하지 않고 우물거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상한 表現을 사용하여 缺禮를 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話者의 眞心을 尊重하여 말 잘못된 失手를 缺禮로 보지 않으려는 風潮가 퍼지고 있다. 이것은 過去の 지나친

形式主義的 傾向을 보다 儉朴한 實質爲主로 바꾼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法度있는 禮節의 傳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再考해야 할 점이다. 왜냐하면 人事말은 形式的 節次를 통하여 人間의 人間다운 움을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 人間關係가 바르게 되고, 사랑을 證明하고 眞心을 밝히는 가장 原初的인 表現이 다름아닌 人事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人事말이 形式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人事말을 사용할 때에는 表情과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할 뿐아니라 人事말의 表現方式도 個性있게 나타내도록 格別한 配慮를 해야 할 것이다.

### 3.2. 特殊社會의 人事말

社會階層에 따라 日常의 言語生活에 差異를 보이는 수가 있다. 어떤 社會集團은 特殊한 狀況에서 一般言衆이 알아들을 수 없는 隱語를 사용하기도 하며, 혹은 一般言衆이 사용하지 않는 節次와 表現方法으로 對話를 나누기도 한다. 먼저 다음 例를 살펴보기로 하자.

갑: 동무시오니까?

을: 동무시오니까?

갑: 첫인사는 올렸으나 居住를 上達치 못하였습니다.

을: 彼此 그리 되었읍니다.

갑: 連一年 坐席으로 今日路上相逢하오니 四寸邑 道理에 情誼 不敏하외다.

을: 彼此 그리 되었읍니다.

갑: 下生 살기는 서울이 地本이외다.

을: 좋은 곳에 놀아 계시외다.

갑: 어찌 좋기를 민사오리카마는 자 귀소 웃영감이시나 제공원 제집사시나 한산 노공원이시나 슬하에 찾자 하시면 어찌 일반 방자히 별호있게 다니오리카마는 父上의 命이 所重한 고로 黃哥姓 가진 고로 黃서울이라 수행합니다.

20 세기 初葉까지 우리나라의 前近代의 商權을 쉬고 있던 探貨商, 장돌림들의 인사치레이다. 그들은 商去來上의 秩序를 위하여 嚴正한 規律와 信義를 지켰고 이러한 規律와 信義를 유지하는 方便의 하나로 初面의 人事가 위와 같은 形式으로 進行되었다. 그들은 인사말을 할 때마다

정중한 몸가짐으로 연신 맞절을 하면서 인사를 교환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人事말과 行爲를 통하여 그들사이의 同質性을 確認하고 確保하였다. 이처럼 特殊社會集團內의 人事말은 特定한 行爲와 結付되어 그 集團의 結束을 다짐하고 強化하는 手段이 되기도 한다. 모든 것이 開放體裁로 변모하고 있는 現代社會에서도 特殊人事말은 存續하고 있다. 軍隊에서의 ‘申告’가 特殊人事에 속할 것이다.

特殊階層이 一般言衆과는 區分되는 人事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嚴格한 身分制度下에서 임금과 臣下, 王族과 兩班, 兩班과 平民, 兩班과 奴婢와 같은 等級 또는 序列이 문제되는 關係에 있어서는 日常의 言語體裁에서 尊重되는 年齡에 의한 尊卑法의 表現樣相이 無視된다. 다음 例文을 보자.

「만옥이 에미야.” 일곱살쯤 나 보이는 사내아이가 머리가 거의 하얗게 센 늙은 아낙을 이렇게 부르자 그 늙은 아낙은 두 손을 배꼽언저리에 맞춰어 붙이고 허리를 굽힌다.

“예, 도령님”

“우리 누님이 신행을 왔다고 아버지가 부르더라.” 꼬마는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배를 내밀면서 거만하게 말한다.

“예, 곧 뒤쫓아 갈 뉘레 도령님 먼저 가지쇼.” 늙은 [아낙은 이렇게 말하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바꾸어 이긴 했으나 여복없이 오두막일 수밖에 없는 집을 한 바퀴 휘돌러 보고,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서 먼 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배넛병신인 딸의 멍청한 모습에 잠깐 눈길을 보냈다가는 한숨을 푹 내신 뒤에 허겁지겁 집을 나서서 우물터를 지나 멀찍이 앞서가는 꼬마를 뒤따른다.

그는 대숲이 둘러싼 어느 초가집의 사립문 안에 들어서서 두 손을 다시 배꼽에 모으고 선 살이 채 안되어 보이는 장년의 사내에게 깊이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린다.

“선님, 부르셨는제라우?”

“어이, 만옥이 에민가? 우리 둘째아이가 신행을 왔는데, 심부름 좀 해야겠네, 음식도 장만하고, 동네 어른들도 모셔오고 해야 쓰겠은게.”

사내는 목소리에 무게가 잔뜩 실린 말투로 마치 옛날에 상전이 종에게 그랬듯듯이 늙은 아낙을 토방마루 위에서 굽어 보면서 말한다.

“그래앉지라우, 알아 모셔서 거행허겠습니다.” 늙은 아낙은 공손히 대답한다. 그리고 이제는 ‘새아씨님’이 된 이 때의 ‘작은 아씨님’과 그와 함께 왔을

생전에 처음 보게 될 ‘새서방님’에게 문안을 올리려고 안방쪽으로 간다.”<sup>6)</sup>

이 글은 全羅道 지역에 아직 殘存하고 있는 ‘동네 齋지기’를 探訪한 르포르타주이다. 7살짜리 어린애와 재지기 아낙인 할머니와의 對話가 아주 劇的이다. 이러한 對話와 人事法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기는 하지만 人事말의 運用이 特殊社會의 規約의 支配를 받는 例로서 注目된다.

#### 4. 特殊對話

이제는 對話當事者들이 생각하고 있는 關心事(範圍)에 焦點을 맞추므로 말미암아 對話가 進行되고 理解되는 例를 檢討해 보기로 하자. 一般的인 對話의 경우에도 對話當事者가 아니면 그 옆에서 對話를 듣고 있어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때에는 對話當事者들만 共有하고 있는 特別한 狀況을 前提로 하고 이야기를 進行시키기 때문에 第三者가 省略된 前提狀況을 알고 있지 않는 限, 그 對話는 풀기 어려운 暗號가 된다. 그런데 對話當事者들이 서로 相對方이 自己의 發話에 前提가 된 狀況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假定下에 또는 알아들으리라는 假定下에 對話를 進行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이른바 말귀가 어두운 사람은 相對方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對話를 斷絶시키고 만다. 그러나 相對方의 意識世界를 어느 程度 짐작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對話속에 極端的인 隱喻를 사용하더라도 그들의 意思疏通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佛家에서는 이러한 對話의 成功的인 事例들을 많이 傳하고 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禪僧들의 對話 몇 개를 살펴보기로 하자.

어느날 慧可(위에 禪宗의 第二祖가 되었음)는 스승 達摩를 향하여 심경을 토로하였다.

“저의 마음이 아직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스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너의 편안치 않은 마음을 이리 가져오너라, 너를 위하여 편안케 하리라.”

6) 숨어사는 외톨막이 1. (1977년 뿌리깊은 나무 刊) p.251. 윤구명 “동네 ‘종놈’ 재지기”에서 再引用.

“스님, 마음이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바치오리까?”

“마음이란 필경 얻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이미 내가, 네 마음을 편안케 하였노라.”

이 순간 慧可는 확연히 大悟하였다. 大安心을 얻어 搖之不動의 安定을 획득할 수 있었다. 慧可의 苦行修道 6年만의 일이었다. 이것이 中國에 있어서 印可의 시작이요, 見性의 출발이다.”<sup>7)</sup>

‘마음’의 本質을 두고 묻고 대답하는 옛날 禪師들의 이야기이다. 여기에서는 아직 對話속에 隱喩가 나오지는 않는다. 다만 ‘마음’이 對象化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感得된 一切도 또한 對象化할 수 없는 虛像이므로 그 虛像에 喩매이지 말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이야기는 共感覺的 隱喩를 통한 깨달음의 對話이다.

「中國의 黃山谷은 당시의 禪學으로 有名한 晦堂禪師를 찾아보고 法을 물었다. 晦堂禪師는 困하면 잠자고, 목마르면 茶마시는 등의 尋常한 말로 대답하였다. 黃山谷은 晦堂禪師에게 法을 물을 때 물론 奇異한 말을 들을 줄로 期待하였다가 失望한 말로 대답함을 듣고는 마침내 의심을 내어서 法을 물기를 더욱 심각하게 하였다. 그런데 法을 물을 때마다 晦堂禪師는 “내가 네게 숨김이 없다”는 말로 대답할 뿐이다. 그후 늦은 봄 어느 날이었다. 晦堂禪師는 黃山谷과 同伴하여 길을 가다가 木犀花가 滿開하여 그 香氣가 사람을 獰습함을 알았다. 晦堂禪師가 黃山谷에게 묻되 “내가 木犀香을 듣느냐?” 黃山谷이 대답하되 “듣느니라.” 晦堂禪師가 말하되 “내가 네게 숨김이 없다”하니 黃山谷이 喩下에 깨달았다. 그것은 과연 어떤 경지이냐.”<sup>8)</sup>

이 對話에서 特異한 점은 ‘木犀香을 듣느냐?’고 말하지 않고 ‘木犀香을 듣느냐?’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을 통하여 “들음(聽)이 “말음(嗅)”을 대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日常이 眞如와 같다는 사실을 說明하는 方便이 되고 있다.

7) 李靑潭·李慧姓(1973). 禪, 마음의 길, 南江出版社, p. 230.

8) 韓龍雲全集 卷 2 p. 316. “禪과 人生”.

言語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客觀化된 이 세상의 모든 對象들을 記述할 뿐 아니라 個人的 內面に 감추어져 있는 心境과 意識까지도 記述하고자 한다. 그러한 意識속에는 不可思議한 깨달음도 포함되어 있다. 그 깨달음은 흔히 너무 깊고, 너무 고요하고 너무 맑고 깨끗하여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현묘한 것으로 描寫된다. 그러나 그것도 言語로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處地에서 隱喩의 形式을 띠고 表現된다. 黃山谷과 晦堂禪師의 對話는 그러한 脈絡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得道의 境地가 어떤 것이냐고 黃山谷이 물었을 때, 그가 期待한 對答은 마치 阿片을 服用한 뒤에 느끼는 것같은 幻覺의 秘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그러나 脫俗의 境地가 世俗을 떠나서 있을 수 없음과, 그렇다고 하여 世俗적인 것 그대로가 아님을 記述하는 方法으로서 其感覺의 表現이 利用되었다. 그런데 禪問答에서 重要な 점은 그러한 對話의 意味가 사실에 있어서는 對話當事자들이 그 對話를 나눈 그 때, 그 現場에서만 참다운 意味機能을 遂行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後代의 사람들이 過去 禪師들의 對話를 吟味하는 것은 對話의 實體를 接하는 것이 아니라 對話의 化石을 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話用論者들은 그러한 對話의 意味를 追跡한다. 言語로는 表出할 수 없는 것을 그래도 言語로 表出하였다는 사실은 그러한 言語의 形態를 갖춘 對話의 어떤 部分, 어떤 要素가 傳達하고자하는 內容의 一面을 反映해 주리라는 期待를 갖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자.

「어느날 석가는 아난과 더불어 갠지스 강가에 이르러 나룻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마철이 끝난 지 오래지 않아 나무에 간헐한 나그네들이 배를 다루고 있었다. 차체를 기다리느라 거의 반나절이 지나자 갑갑증이 난 아난은 스승 석가를 돌아다 보며 말했다.

“새존이시어, 저 배를 타지 않아도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차체를 기다리면 되느니라.”

갑갑증이 더한 아난은 거듭 졸랐으나 석가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이때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스치고 강 건너로 조용히 사라졌다. 아난은 부러운 듯이 새의 자취를 뒤쫓고 있다가 말했다.



“새존이시어, 저 새와 같이 거리낌없는 길이 부럽습니다.”

“그것은 大乘大士의 행적과 같아서 오고간 자취를 남기지 않느니라.”」

우리는 이 對話가 歷史的 事實과 符合하느냐 않느냐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아난의 물음말과 석가의 대답말이 次元을 달리 한 채, 표면적으로는 問答의 形式을 比較的 충실하게 취하고 있다는 점을 注目해야 한다. 그리고 석가의 대답이 含蓄하고 있는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 對話가 우리에게 傳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석가의 진정한 대답은 紹介된 文面 밖에 있다. 그렇다고 석가가 대답한 말을 버리고 대답을 얻는다는 것도 안된다. 이러한 矛盾의 受容을 佛家의 對話는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제 첫번째 문답을 조금 자세히 分析해 보자.

첫째, 아난과 석가는 배를 타고 對岸에 이르는 現實的인 事件을 두고 修行의 方法論을 論議한 것이라고 볼 경우, 아난은 지름길 修行法을 물은 것이었다. 그때 석가는 지름길이 있을 수 없음을 잘라 말한다.

둘째, 아난은 석가의 得道를 부러워하며 稱頌하고 讚揚한 것이라고 풀이할 경우 석가의 대답은 冷嚴한 것이었다. 修行의 길은 앞선 者를 찬양하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 깨닫는 데 있음을 強調하였다.

두번째 問答도 첫번째 問答의 方法대로 分析할 수 있다. 이 대화의 첫째의미는 得道者의 自由로움에 대한 讚辭요, 또 修行者가 스스로 힘쓸 것을 強調한 점이있어서 첫번째 對話의 둘째意味와 같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석가의 대답은 得道者의 自由로움은 得道者自身에게 있어서는 이미 自由니 不自由니 하는 次元을 넘어섰으므로 自由롭다는 表現조차 無色한 것이라는 淡淡한 解說로 볼 수 있다.

以上の 分析을 通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結論은 무엇인가? 어떤 對話이거나 對話當事者들이 問題삼고 있는 關心事(우리는 이것을 範疇라고 부르자.)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그 對話의 意味는 把握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 範疇를 찾아내어 거기에 一致시키는 行爲가 얼마나 重要한가를 다음 對話로 確認해 보기로 하자.

「甲：그대의 이름을 묻고자 합니다.

乙<sup>1</sup>: 예, 조선에서 온 중 白鶴鳴이올시다.

甲<sup>2</sup>: 그렇소 이름은 흰 鶴인데, 어찌 검은 가마귀의 너울을 쓰고 계시오?"

乙<sup>2</sup>: 山河大地에 겨울눈 철이 깊은지가 오래데, 和尚은 어찌 들끝을 날으는  
여름 가마귀에 한 눈을 파시오?

甲<sup>3</sup>: 눈이 어두워 그릇 보았나 보오. 허물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보아 주시  
오.

乙<sup>3</sup>: 늙은 술가지에 바람이 선지 오래도소이다.

甲<sup>4</sup>: 그대 이름이 분명 鶴鳴일진번, 뽀내어서 한번 울음을 떨치어 보라.

乙<sup>4</sup>: 늙은 소나무가지가 구불고 움토라져서 발붙이고 걸다란 목청을 가다듬  
을 겨를이 없나이다.]”

이 對話를 理解하기 위하여서는 對話當事者들의 身分, 時代背景 및 對話의 方式 등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한다. 對話에 나타난 바와 같이 乙은 朝鮮僧 白鶴鳴이고 甲은 日本僧 釋宗演이며 日帝植民期間 乙이 日本을 訪問해서 筆談에 依한 對話이다. 修人事의 形態속에서 相對方의 사람됨을 알아보려는 探索戰이 벌어진다. ‘白鶴鳴’이란 이름을 素材로하여 對話가 進行된다. 對話 1은 乙의 自己紹介로 이름이 밝혀진다. 對話 2에서 甲은 乙을 試驗하기 위하여 묻는다. 이름이 白鶴인데 어찌 黑長衫의 僧服을 입었느냐고 짐짓 是非를 거는 것이다. 乙의 對答은 悠然하다. 支配國 國民의 눈으로 被支配國 百姓의 작은 티끌에 무슨 執着을 하느냐고 反問한다. 對話 3에서 甲은 자기가 응졸했음을 謝過한다. 乙은 이미 그 問題를 잊어버리고 超然히 自適하고 있음을 알린다. 對話 4는 다시 反擊을 加한다. 鶴鳴이란 이름처럼 울어보라고 재촉한다. 本色을 밝히려는 말도 되고 來訪의 意圖가 무엇이냐고 묻는 말도 된다. 이때에 乙의 對答은 植民治下의 朝鮮佛教, 朝鮮僧의 處地를 어찌서 헤아리지 못하느냐고 抗辯한다. 植民地時代 韓國宗教人이 당해야했던 苦惱의 一面을 이 對話를 通해서도 推諒할 수가 있다. 僧侶들의 詩的인 問答을 통해서도 民族의 悲劇이 感知된다. 그런데 이러한 理解는 對話가 實現되었던 當時의 時代背景 곧 社會의 條件과 當事者들의 身分, 그리고 核心이 되는 關心事를 알지 못하면 解讀되지 않는 暗號에

9) 朴喜宣(1976)에세이 般若心經, 教學社, pp.123~124.

그치고 만다는 것을 同時에 알려주고 있다.

## 5. 結 語

以上으로 우리는 韓國語 慣用表現 가운데 熟語와 人事말에 대하여 話用論的 考察을 하였다. 檢하여 傳承되어 오는 몇개의 特殊對話에 대하여도 注目하였다. 이 檢討過程에서 우리가 確認할 수 있었던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熟語의 意味를 바르게 理解하려면 話脈的 要素를 알고 있어야 한다. 話脈的 要素는 文化的인 것, 社會的인 것, 民俗的인 것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熟語 理解의 또 다른 條件은 話脈內에서의 話者의 視點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이다.

3. 熟語의 意味機能이나 形態構成은 熟語가 아닌 一般語辭 및 複合語와 明快하게 區分지어지는 것이 아니며 言衆의 理解度에 따르는 것이다.

이와같은 熟語의 特性은 다른 慣用表現에도 適用되는 事項일 것이다.

4. 人事말은 問安, 祝賀, 慰勞를 目的으로 하는 儀式節次에 附隨되는 言語行爲이다.

5. 人事말은 發話가 지나는 言語文學的 意味를 最大限으로 蒸發시킨 慣用表現으로서 蒸發된 意味를 報償하기 위하여 人事의 目的에 合當한 鄭重한 態度가 要求된다.

6. 傳承되는 特殊對話를 理解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範疇의 一致가 先行되어야 한다. 이 範疇의 一致는 熟語項에서 言及된 話者의 視點과 同軌의 것이나 範疇의 一致는 後代人的 意味追跡까지도 考慮에 넣는 概念이다. (그러나 이 問題는 充分히 檢討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어서 話用論은 아직 새로운 研究分野이다. 論議해야 할 對象은 많으나 整備된 研究業績은 그렇게 많지 않다. 本稿도 意慾만 앞세우고 問題거리만 던져 놓았다. 앞으로 보다 堅實하게 다듬은 研究結果를 期約하기로 한다.

## 主 要 參 考 文 獻

- 金文昌(1974), 국어관용어의 연구, 국어연구 30, 서울대학교.
- 金宗澤(1982), 國語語用論, 螢雪出版社.
-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 張爽鎮(1985), 話用論研究, 塔出塔社.
- Austin, J.L. (196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afe, Wallace(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ivon, Talmy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Grice, H.P. (1968), "Utter's meaning, Sentence-meaning, and Word-meaning." *Foundations of Language*, 1968. 4(3).
- Heringer, J. (1976), "Idioms and Lexicalization in English in M. Shibatani (ed) *Syntax and Semantics 6: The Causative construction*. Academic Press, New York.
- Lakoff, G (1986),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tell us about the Nature of thought*. (manuscript)
- Levinson, S (1983), *Pragma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R. (1969). *Speech A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